

가족 드라마는 말한다 '밥'은 우리의 힘이라고!

윤석진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드라마 평론가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밥과 된장찌개냐, 아니면 노릇노릇 구운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이냐? 드라마에 등장하는 신혼부부의 아침 식탁은 대부분 출근을 서두르는 신랑의 건강을 걱정하는 신부의 사랑으로 채워지기 마련이지만, 그 속은 그리 간단치 않다. 신혼의 단꿈을 꾸는 동안은 된장찌개건 토스트건 상관없이 없지만 깨소금의 효력이 떨어지면서 결혼이 현실이 되는 순간, 아침 식탁은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전쟁터가 된다.

신부의 음식 솜씨가 평균 이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문제는 자못 심각해질 수 있다. 대부분의 미혼 여성이 그러하듯 체중 조절을 위해 아침 식사를 간단히 하고 싶은 신부와 달리, 어머니의 손맛이 묻어나는 구수한 된장찌개가 그리운 신랑은 신경전을 벌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침 식탁의 주요 식단이 무엇이냐의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아침 식탁은 신혼의 단꿈에서 깨어나면서부터 결혼 생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신랑과 신부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최전선의 전쟁터이기 때문이다. 2008년 주말마다 수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KBS2 주말연속극 「엄마가 뽀났다」(김수현 극본, 정을영 연출)에서는 토스트와 커피 한 잔의 아침 식단을 된장찌개로 바꾸면서 부부 관계의 주도권이 아내에게서 남편으로 넘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결혼 생활 30여 년 동안 아내 '고은아' (장미희 분)를 여왕처럼 떠받들었던 남편 '김진규' (김용건 분)가 더 이상 아내의 안하무인을 견디지 못해 이혼을 선언하고, 돌변한 남편의 태도에 놀란 아내가 남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역전된 부부 관계가 아침 식단의 변화로 표현된 것이다.

한국인에게 된장찌개와 토스트는 그저 단순한 음식이 아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살아 있는 구수한 된장찌개와 가볍게 허기를 채울 수 있는 토스트는 한국과 서양의 음식 문화를 상징하는 음식들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마에서 한국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의 가치가 대립되는 장면을 표현할 때 '한식'과 '양식'으로 연출하는 것이다. 「엄마가 뽀났다」에서 '김한자' (김혜자 분)와 '고은아'의 가옥 구조와 음식 문화를 비교 대조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 것도 이 때문이다.



「엄마가 빨났다」의 주요 공간적 배경은 4대가 함께 모여 사는 '나일석' (백일섭 분)과 '김한자' 부부의 집이다. 엄마 '김한자'의 일상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 집의 핵심 공간은 커다란 테이블이 놓인 '마루'이다. 가족은 거실에 놓인 테이블을 밥상 삼아 끼니때마다 식사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눈다. 이들은 대부분 다양한 찌개 종류를 반찬 삼아 끼니를 때우지만 계절에 따라 비빔국수와 칼국수, 수제비와 떡만둣국 같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가족의 정을 나눈다. 커다란 용기에 넣고 한꺼번에 조리해서 나눠 먹는 찌개와 비빔국수, 칼국수, 수제비, 떡만둣국은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식으로 '김한자' 가족의 소탈한 일상을 잘 보여준다.

'김한자'의 일상이 '거실'과 '식당'의 기능을 함께 하는 '마루'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것과 달리, '고은아'의 집은 거실과 식당이 분리되어 있는 서양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서양 가옥의 공간적 특성에 맞게 '고은아'의 가족은 '김진규'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까지 '스테이크'를 비롯한 서양식 음식을 주로 접했다. 무남독녀 외팔로 그 누구도 말리기 어려울 정도로 고집불통이며 무슨 일에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 '고은아'의 성격이 함께 나눠 먹는 찌개 종류의 음식보다 1인용으로 조리된 서양 음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엄마가 빨났다」는 다른 성격의 엄마라 할 수 있는 '김한자'와 '고은아'의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찌개'와 '스테이크'라는 음식을 활용했다. 구수한 냄새만 맡아도 가족의 얼굴이 떠오를 정도로 일상의 맛이라 할 수 있는 '찌개'와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어쩌다 한 번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맛의 '스테이크'는 '김한자'와 '고은아' 가족의 계층 갈등을 대변하기도 한다. '김한자'의 막내딸이자 '고은아'의 며느리인 '나영미' (이유리 분)가 아무리 노력해도 좁혀지지 않는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다가도 친정집에서 엄마가 차려

주는 찌개를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는 극적 상황은 ‘찌개’와 ‘스테이크’로 대변되는 계층 간의 갈등을 잘 보여준다.

‘김한자’의 똑똑한 만딸이자 자랑거리인 ‘나영수’(신은경 분) 역시 엄마가 차려주는 ‘밥’한 그릇으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인물이다. 잘나가는 변호사로 엄마의 자랑거리였으나 애 딸린 이혼남과 결혼하겠다고 부모의 속을 뒤집어놓는 ‘나영수’는 직장 근처에 집을 얻어 혼자 생활하는데,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면 엄마를 찾아간다. 그리고 엄마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억울하고 화나는 일들을 털어놓는다.

이처럼 「엄마가 뿔났다」에서 음식은 단순한 끼니의 차원을 넘어 지친 삶을 위로해주는 수단으로 의미가 확장된다. 딸들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된장찌개’가 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어머니의 ‘약손’으로 의미가 전이된 것이다. 이것은 ‘고은아’의 남편과 아들이 ‘스테이크’에서 ‘찌개’로 아침 식단을 바꾸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밥’이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특유의 정(情)을 확인하는 수단임을 잘 보여준다.

그리고 세탁소에서 바느질 수선을 전담하는 아줌마 조여인이 ‘나일석’의 쌍둥이 동생이자 ‘김한자’의 여고 동창생인 ‘나이석’(강부자 분)과 같이 살면서 한술밥을 먹는 극적 상황은 피가 섞인 ‘가족(家族)’을 뛰어넘어 한술밥을 같이 먹는 ‘식구(食口)’의 의미를 강조한다. 이러한 극적 설정은 ‘밥’이 함께 모여 사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원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3대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풍경은 이제 일일연속극이나 주말연속극에서나 볼 수 있다. 무한 경쟁의 구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아침이나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 아니라 대단히 특별한 ‘행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을 자각시켜주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밥 한 끼 먹으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의 소중함을 떠올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밥’은 우리의 힘이다!